

## ■ 주요 기사

### ○ 국세청 통계, 지난 해 근로자 역대 연봉 60만명 (7건)

조선	<a href="#">역대 연봉 60만명... 직장인 30명 중 1명꼴</a>
중앙	<a href="#">작년 역대 연봉 60만명, 근로자 100명 중 3명 꼴</a>
동아	<a href="#">역대 연봉 직장인 59만6000명... 13% 증가</a>
매경	<a href="#">'흔해진 역대연봉' 60만 육박...전년비 7만명 ↑</a>
한경	<a href="#">'역대 연봉자' 60만명...1년새 7만명 늘었다</a>
한겨레	<a href="#">지난해 '역대 연봉' 직장인 60만명...평균연봉 3245만원</a>
경향	<a href="#">서울 위에 세종...작년 평균 연봉 3679만원</a>

### ○ 서울시 건설업 혁신 3주 대책 (3건)

동아	<a href="#">안전사고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 배제</a>
한경	<a href="#">서울시 발주공사, 내년부터 공동도급제 실시</a>
한겨레	<a href="#">서울시 공사 수주 기준 까다로워진다...공동도급제·실질임금 보장</a>

## ■ 주요 칼럼 · 사설

### ○ 노동개혁 관련 (1건)

한경	<a href="#">[선임기자 칼럼] 노동개혁 '렛 잇 비(Let it be)'</a>
----	---

### ○ 남성 육아휴직 관련 (1건)

중앙	<a href="#">[취재일기]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가 반갑다</a>
----	---

### ○ 유망 벤처 육성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1건)

조선	<a href="#">[사설] 벤처가 만든 일자리 삼성전자 7배</a>
----	---

### ○ 2017년 청년 취업 관련 (1건)

중앙	<a href="#">[시론] 내년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a>
----	---

### ○ 저출산 대책 관련 (1건)

매경	<a href="#">[기고] 저출산 대책,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을</a> (김상호 한국보사연 원장)
----	--

### ○ 2017년 이념지도 관련 (1건)

경향	<a href="#">[오민규의 노동과 삶]2017년의 이념 지도 &lt;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gt;</a>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a href="#">억대 연봉 60만명… 직장인 30명 중 1명꼴</a> B1면
		내용	월급쟁이들 사이에 '꿈의 연봉'이라 불리는 억대 연봉이 점차 흔해지고 있다.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직장인은 약 60만명에 달했다. 월급쟁이 서른 명당 한 명꼴이었다
	고용 복지	제목	<a href="#">바늘구멍 대기업 취업</a> A14면
		내용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10월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내년 1분기까지 채용 계획 인원은 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감소
		제목	<a href="#">[사설] 벤처가 만든 일자리 삼성전자 7배</a> A35면
		내용	국내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대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의 고용 기여도가 7배. 유망 벤처기업을 1만 개 만들면 청년층 일자리가 24만 개 더 생길 것
제목	<a href="#">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최저임금은 6470원</a> B8면		
내용	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 201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인상		
중앙	노동	제목	<a href="#">작년 억대 연봉 60만명, 근로자 100명 중 3명 꼴</a> E6면
		내용	지난해 연봉을 1억원 이상 받은 근로자가 59만6000명 명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근로자 100명 중 3명꼴이다. 이는 국세청이 28일 발간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담긴 내용이다.
	고용 복지	제목	<a href="#">[취재일기]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가 반갑다</a> E8면
		내용	인구 정책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정부 주무부처(보건복지부)에 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은 일개 부처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초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며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문제에 관한 한 기업은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
		제목	<a href="#">[시론] 내년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a> A33면
		내용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소비가 가장 활발한 20대 인구의 감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위기를 맞는다는 뜻이다. 나아가 주력 소비층인 30~40대 감소의 전조이기도 하다. 소비 감소는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부른다.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이 앞으로 10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환경	제목	<a href="#">서울 미세먼지 6년 새 가장 심했다</a> A12면	
	내용	2011년 이후 조금씩 나아지던 서울의 미세먼지가 올해 악화돼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올해 m <sup>3</sup> 당 48μg으로 정부의 환경기준(50)에 육박했으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동아	노동	제목	<a href="#">억대 연봉 직장인 59만6000명… 13% 증가</a> A16면
		내용	지난해 각종 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은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꿈인 억대 연봉을 달성한 근로자는 60만 명에 육박
		제목	<a href="#">안전사고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 배제</a> A25면
		내용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28일 발표. 하도급 불공정과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3불(不)'을 막겠다는 취지
매경	노동	제목	<a href="#">'흔해진 억대연봉' 60만 육박…전년비 7만명 ↑</a> A12면
		내용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000명으로 전년(52만6000명)보다 13.3%(7만명) 늘었다. 전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상위 3.4%에 해당
	고용 복지	제목	<a href="#">[기고] 저출산 대책,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을</a> (김상호 한국보사연 원장) A34면
		내용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노동, 주거, 보육, 일·가정양립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할 때
한경	노동	제목	<a href="#">'억대 연봉자' 60만명…1년새 7만명 늘었다</a> 2면
		내용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약 6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목	<a href="#">서울시 발주공사, 내년부터 공동도급제 실시</a> 29면
		내용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지난해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 등 주요사고에서 드러난 불공정 거래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이다.
		제목	<a href="#">[선임기자 칼럼] 노동개혁 '렛 잇 비(Let it be)'</a> 38면
		내용	박기호 선임기자 겸 좋은일터연구소장, 근로기준법은 불합리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부는 '법 개정=노동개혁 성과'라는 틀을 고집하지 말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치권을 설득하는 게 맞다. 노동개혁은 지금 무리한 추진보다 '순리(順理)대로'가 정답일 수 있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겨레	노동	제목	<a href="#">서울시 공사 수주 기준 까다로워진다…공동도급제·실질임금 보장</a> 17면	
		내용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업 혁신대책을 발표.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 체계로 바꿔 건설현장에서 생산 효율성을 올리고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취지	
		제목	<a href="#">지난해 ‘억대 연봉’ 직장인 60만명…평균연봉 3245만원</a> 19면	
		내용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직장인이 약 60만명에 달했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3245만원으로 조사됐다. 주류 출고량이 늘고, 새로 창업한 사람의 3분의 1가량이 40대로 나타났다	
		제목	<a href="#">공공기관 평가때 청년고용·정규직 전환 배점 확대</a> 19면	
		내용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과 관련한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제목	<a href="#">정규직으로 정년퇴임한 서울시 청소노동자</a> 21면	
		내용	28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정년 퇴임식에서 만난 서울시청 총무과 소속 청소노동자 김재화(60)씨는 지난해 1월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전환 전 2년 동안 준공무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 이전에는 용역 소속 노동자였다.	
		고용 복지	제목	<a href="#">50년뒤 노인비중 세계 최고…“인구정책 대전환 필요하다”</a> 14면
			내용	약 50년 뒤인 2065년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 10명 중 4명꼴로 많아진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를 보면, 65살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해 12.8%에서 2065년에는 42.5%(중위 가정)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1위다.
제목	<a href="#">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급류’에 주목하라</a> 14면			
내용	전문가들은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에 끼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 노동력 감소와 부양부담 증가가 동시에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경향	노동	제목	<a href="#">서울 학교 경비노동자 '2인 교대 근무제' 전환</a> 12면
		내용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7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66억원(학교당 약 530만원)을 증액하고, 주말, 명절 등에도 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교대 근무제'로 전환 발표. 학교 경비노동자의 근무인정 시간에 대한 보수 원가도 최저임금(6470원)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8329원)로 적용해 지급할 계획
		제목	<a href="#">서울 위에 세종...작년 평균 연봉 3679만원</a> 20면
		내용	28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245만원으로 전년보다 2.5%(77만원) 늘었다. 지자체별로 울산이 410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3679만원), 서울(3635만원) 순이었다.
		제목	<a href="#">[오민규의 노동과 삶]2017년의 이념 지도 &lt;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gt;</a> 28면
		내용	2007 이념 지도에 나타난 국민들 의식에는 '다소 부담되더라도' '다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지금 당장은 손해와 불이익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나를 포함해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영리한 생각이다. 2017년의 이념 지도는 어떻게 그려 나가야 할까.

<끝>